

고전 아랍어의 형성에 주변 외국어가 끼친 영향과 차용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정규영
조선대

◁ 목 차 ▷

- I. 서론
- II. 꾸란에 존재하는 외래어
 - 1. 그리스어와 라틴어
 - 2. 아랍어와 하바쉬어
 - 3. 페르시아어
- III. 외래어의 언어적 특징
 - 1. 근자음 혹은 파생어가 없음
 - 2. 순수 아랍어의 어형이 아님
 - 3. 순수 아랍어의 자음배열순서에 위배됨
- IV. 결론

* 이 논문은 2000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e Foreign Languages' Influences on the Formation of Classical Arabic and Some Linguistic Features in the Taṣrīb - with Laying Emphasis on the Greek, the Latin, the Habashite, the Aramaic, and the Persian in the Holy Quran

Jeong, Kyu Young
Chosun University

The Classical Arabic was influenced by languages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The evidences are found in the Quran, the Hadith, and the Literature of the Jahiliyyah concretely in the forms of foreign terms, borrowed word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tried to figure out the borrowed words in the Classical Arabic, especially in the Quran.

The study is divided into four chapters: Introduction, Borrowed Words in the Quran, Linguistic Features of Borrowed Words, and lastly Conclusion. In the second chapter, one of the two main chapters, the researcher dealt with borrowed words from the Greek and the Latin, the Aramaic and the Habashite, and the Persian.

Latin vocabularies are usually found in the semantic fields of commerce, administration, title, monetary unit, weight and measure. Meanwhile, Aramaic vocabularis range from the semantic fields of agriculture, handicraft, plants to trade and commerc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Borrowed words from the Habashite are mainly found in the vocabularies of religion. In the third chapter, the another main chapter, the researcher enumerated linguistic features of borrowed words as follows. First of all, borrowed words usually have not radical consonants or derivatives. Secondly, the Mizans of borrowed words is not pure Arabic. Finally, borrowed words usually do not fit the consonantal order of the pure Arabic.

The researcher concludes the study by hoping the simillar studies will come out in the near future, which focus upon the borrowed words found in another two resources, the Hadith, and the Literature of the Jahiliyyah.

I. 서 론

이슬람 이전과 이후의 기록이나 역사적 사건들은 아라비아 반도가 외국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해준다.¹⁾ 맥카의 꾸라이쉬 부족들이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국경을 넘어 정기적인 무역여행을 한 것이나²⁾ 맥카의 우카즈 시장에 메소포타미아와³⁾ 비잔틴 제국에서 들여온 상품들이 판매되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아라비아 반도와 주변국들 사이에는 정기적이고 빈번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andali Gūzi:1228-1239)

고전 아랍어 형성기에 있는 주변 외국과의 교류로 말미암아 아랍어는 주변 외국어의 영향에 불가피하게 노출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고전아랍어에 외래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전 아랍어의 외래어’에 관한 연구는 고전 아랍어로 기록된 모든 자료(꾸란, 하디스, 자힐리야 시대⁴⁾의 시가문학)의 외래어를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기한 3가지 자료에 있는 많은 외래어를 전부 언급하는 것이 지면 관계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꾸란의 외래어에 한정시키되 연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디스와 자힐리야 시대의 시가문학에 있는 외래어도 언급하기로 하겠다.

꾸란에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콥트어, 베르베르어, 터키어, 그리스어 등 많은 외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1차적인 자료조사 결과 이 가운데 그리스어와 라틴어, 아랍어와 하바쉬어, 페르시아어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외래어에 연구범위를 한정시킬 것이다. 본 논문의 아랍어의 로마자 음역은 이규철(1996)의 방식을 주로 참고하였고 아랍어의 한국어 전사는 학계에 통일된 안이 아직 없으므로 논자의 임의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
- 1) 꾸란은 아라비아반도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무역활동이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내가 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각종 과일을 가져다 주지 않았느냐 … ”(꾸란 알까사스장 58절)
 - 2) 꾸라이쉬족의 무역여행을 언급한 꾸란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 … 꾸라이쉬족의 안전을 위해, 겨울과 여름의 여행이 그들에게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 ”(꾸란 알꾸라이쉬장 2~3절) 꾸라이쉬족의 두 여행 중 여름 여행은 북쪽으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여행이었고 다른 한 여행은 겨울 무역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로 가는 여행이었다.
 - 3)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 사이의 지역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이라크와 시리아의 일부 지방이 이 지역에 해당된다.
 - 4) 자힐리야 시대는 일반적으로 이슬람 출현 이전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문학사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슬람 출현 이전의 약 150년 동안을 자힐리야 시대의 문학으로 간주하고 있다.(송경숙 외, 1992:3)

II. 꾸란에 존재하는 외래어

1. 그리스어 및 라틴어

기원전 64년 로마가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의 일부 지역을 정복하고, 기원전 30년 이집트를 정복하면서부터 아랍어는 그리스어 및 라틴어의 영향에 노출된다. 두 언어의 영향은 이슬람 출현 후(610년) 아랍인들이 비잔틴 제국의 아시아, 아프리카 영토를 정복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두 언어 중 그리스어의 영향은 동·서 로마의 분열 이후 아랍인들이 비잔틴(동로마) 제국의 영향아래 있었던 시기에 특히 강했다.

이슬람이 출현하기 전 비잔틴의 로마인들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아랍계 갓산 왕조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목적은 두 가지로, 하나는 갓산조로 하여금 변방을 침입하는 베드윈과의 완충지대가 되게 하고, 다른 하나는 동쪽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군사적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아랍인들은 그리스인과 그리스 문화를 직접 접하기보다는 아랍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아랍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그리스어 어휘들은 아랍어로부터 간접 차용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구치는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어휘가 130개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Bandali Gūzi; 339-348)

(보기 1) 그리스어에서 온 외래어

a) diáblis	→	ʔiblis(사탄)
b) evangéli-on	→	ʔingil(신약성서)
c) histori-a	→	ʔustūrah(전설)
d) drakhm-ée →	dirham(디르함)	
e) kyb-os	→	kub(컵)
f) khor-a	→	qaryah(마을)
g) khartees	→	qirtās(종이)

위의 보기에서 (a)의 ʔiblis(사탄)는 그리스어 diáblis의 두 음절 /diá-/가 생략된 후 /ʔi-/로 대체되었고 어미의 /-os/도 /-is/로 대체되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부터 직접 아랍어에 유입되었다기보다는 고대 시리아어나 하바쉬어를 통해 간접 차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단어는 꾸란 알바까라장 34절 외 10군데에 언급되고 있다.

(b)의 ?ingil(신약성서)의 경우, 알자왈리끼는 이 단어의 기원을 밝히지 않고 그냥 외국어라고 언급한 반면, 푸와드 하사나인 박사는 그리스어에서 온 것이라고 밝혔고 베르그스트라서(1929)는 그리스어에서 하바쉬어를 거쳐 아랍어에 들어간 것으로 보았다.(ʕabd al-ʕaziz; 334). 꾸란 알 이므란장 3절을 포함한 12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다. (c)의 ?uṣṭūrah(전설)은 복수 ?aṣaṭīr가 알안암장 25절 외 8군데에서 언급되었다.

역시 그리스어 drakhm-ée에서 유래한 (d)의 dirham(디르함)은 비잔틴의 로마인을 경유하여 아랍어에 유입되었으므로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오늘날 이라크에서 디르함은 50 필스짜리 동전의 단위를 나타내며, 이집트에서는 약 3.12g의 무게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꾸란에서는 복수 darāhim이 유스프장 20절 한 곳에서 사용되었다.

(e)의 kūb(꺾)은 복수 ?akwāb이 알자크라파장 71절 외 3군데서 사용되었고, (f)의 qaryah(마을)은 알바카라장 259절 외 32곳, 복수 qurā는 앓사바장 18절 외 17곳에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g)의 qirtās(종이)는 알안암장 7절 한 곳, 복수 qarāṭis가 알안암장 91절 한 곳에 사용되었다.

(보기 2) 라틴어에서 온 외래어

- | | | |
|---------------|---|--------------|
| a) constans | → | qistās(도량단위) |
| b) quintarius | → | qintār(도량단위) |
| c) custas | → | qist(도량단위) |

아랍어에 유입된 라틴어 어휘들은 무역이나 상업관련 어휘, 제국의 행정조직이나 칭호 관련 어휘, 도량이나 화폐 단위의 이름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 꾸란에 존재한 라틴어는 도량단위 관련 어휘들이 대부분이다.

2-(a)의 qustās 혹은 qistās는 꾸란 알이스라장 36절과 앓슈아라장 182절에서 사용되었고 그 의미는 ‘저울’이었다. 2-(b)의 qintār(복수:qanātīr)는 원래 100라틀(ratl)을 의미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단순히 양이 많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꾸란에서 qintār(더미 혹은 양의 많음)는 알이므란장 75절과 알니사장 20절 두 곳에 쓰였고 복수 qanātīr도 알이므란장 15절에 언급되었다.

“젤 때에는 제대로 달고, 올바른 저울로 무게를 달라.”(꾸란 알이스라장 36절)

“원하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인간에게 아름답게 보이거나, 그 원하는 것들이란 여인과 아이들, 쌓여진 금, 은 더미(al-qanātīr) …”(꾸란

알이프란장 15절)

이 밖에 하디스와 자힐리아 시대의 시문학에 나타난 라틴어 가운데 *ratl*(복수; *artāl*)은 현재 이집트에서 449.28g, 시리아에서 3.202kg, 베이루트와 알레포에서는 2.566kg으로 쓰이고 있다.(Hans Wehr:345) 또 비잔틴 제국과의 무역을 통해 아랍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어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라틴어의 *saceus*가 변한 아랍어의 *šakk*이다. *cartis*가 변한 아랍어의 *qirtas*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구지(1928)에 따르면 아랍어에 유입된 라틴어 어휘는 고대 시리아어, 그리스어, 페르시아어를 통해 간접 유입된 경우가 많았고, 드물지만 히브리어를 통한 유입도 있다고 주장했다.(Bandali Gūzi; 1228-1238) 아랍어 *qamiṣ*(의복)가 이런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이 단어는 꾸란 유스프장 18절 외 5곳에서 사용되었다.

2. 아랍어 및 하바쉬어

이슬람 출현 이전에 아랍인들은 대상(隊商)들의 휴식지였던 삼 지방의 오아시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이 사용한 아랍어는 기원전 500년경에는 히브리어나 가나안어(혹은 페니키아어)를 대신하여 고대세계의 공용어로 사용된바 있는 매우 중요한 언어였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아랍어는 쇠퇴하였으나 무역과 외교분야에서 그리스어와 함께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었으며 유대교의 언어로서도 중요하였다.

이슬람 출현 이전부터 아랍인들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고대 시리아인들과 자주 접촉하였다. 반도의 아랍인과 아랍인들의 접촉은 맥카의 상인들이 다마스쿠스까지 진출하여 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이었다.(Hasan Zāzā; 102-110)

아랍어가 아랍어로부터 본격적으로 차용을 한 시기는 이슬람이 출현하기 약 200년 전부터 이슬람 출현 초기인 7세기초까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차용 경로는 다양하여 유대인 아랍어에서 온 것도 있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어(기독교인들이 사용한 시리아 아랍어)에서 유래한 것들도 있다.

(보기 3) 아랍어에서 온 외래어

rummān(석류) - *zayt*(올리브유) - *khamr*(포도 주스) - *bāb*(문) - *qufl*(자물쇠)
 - *zujāj*(유리창) - *khatam*(반지 인장) - *sultān*(술탄) - *ʔummah*(움마) - *ʔalam*(세계) - *madīnah*(도시) - *sūq*(시장) - *qisṭ*(공정) - *sabil*(도로) - *kataba*
 (쓰다) - *tafsīr*(설명) - *rahmān*(자비로운) - *qayyūm*(영원한) - *sikkīnah*(평정)

- furqān(증거) - malāk(천사) - ṣallā(예배하다) - sāma(단식하다) - tāba(회개하다) - kafara(불신하다) - ṣalīb(십자가)

아랍어에 유입된 아랍어는 보기 (3)과 같이 농업⁵⁾, 상업, 수공업 관련 이름, 아라비아 반도에서 자라지 않는 식물들의 이름, 주택 관련용어, 여러 가지 도구의 이름, 정치와 행정용어 등으로 다양하다. 위의 보기 중 ‘술탄’은 꾸란에서 35 군데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움마’(이슬람 공동체) 역시 약 50 군데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른 단어들도 꾸란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단어들이 이슬람 이전에 이미 아랍사회에 널리 알려진 단어들이었던 것 같다. 또 쓰기, 읽기, 가르치기 등과 관련된 어휘의 대부분은 아랍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는 아랍어가 아랍어 문자로부터 발전한 것임을 생각할 때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한다.(ʿabd al-ʿAzīz ; 16) 이 중 ‘쓰다’는 꾸란의 약 60여 구절에서 사용되었으며, ‘책’은 무려 220 구절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Muḥammad Fuṣṣal ʿabd al-Bāqī; kataba 향 참조)

위의 보기 중 zujāj(유리), khātam(인장)은 꾸란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의 빛이시라. 당신의 빛의 비유는 빛나는 벽감과 같아서, 그 안에 등불이 있느니라. … 유리(zujāj)는 말하자면 빛나는 별이니라.”(꾸란 알누르장 36절)

“무함마드는 너희 사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이며, 예언자들의 봉인(khātam)이니라.”(꾸란 알아잡장 41절)

자비로운, 영원한(영속의), 신의 존재; 마음의 평정, 증거(꾸란), 천사, 예배하다, 단식하다, 참회하다, 십자가 등과 같은 종교관련 용어도 모두 아랍어에서 차용된 것들이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는 아랍어에서 온 것으로 간주되는 약 40개의 어휘가 있는데 이는 꾸란의 외래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에 해당한다.

(보기 4) 하바쉬어에서 유래한 외래어

- a) ḥawārī(사도)
- b) nāfaqa(위선을 행하다)
- c) minbar(설교단)
- d) mihrab(미흐랍; 예배방향을 알리는 모스크 내부의 벽감)

5) 농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어휘는 아랍어에서 유래한 것들이다.

이슬람 출현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부에는 두 개의 셈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부 예멘인의 문화, 다른 하나는 하바쉬(에티오피아인)의 문화였다. 예로부터, 예멘은 풍부한 토산물과 자원으로 유명했고 고대의 무역로 상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강대국 페르시아나 에티오피아의 침략을 받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예멘의 아랍어(남부 아랍어)에는 하바쉬어에서 유래한 어휘가 많고 고전 아랍어가 예멘으로부터 차용한 외래어 중에 기원이 하바쉬어(에티오피아어)인 단어가 많이 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히자즈 지방의 아랍인과 무역활동이나 이주에 의한 평화적 접촉은 물론 전쟁에 의해 무력적으로 접촉하기도 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출생한 570년경 에티오피아의 왕 아브라하가 기독교를 강요하기 위해 코끼리를 앞세우고 메카에 쳐들어 온 것은 그 역사적 실례가 된다.(Hasan Zaza ; 135-136)⁶⁾ 그 결과 에티오피아인들의 하바쉬어가 아랍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어휘들도 생기게 되었다.

아랍어에 있는 하바쉬어 중 대표적인 것은 위의 보기 (4)에 있는 종교 용어들이다. 이 가운데 4-(a)의 'hawār'(복수; ḥawāriyūn)는 하바쉬어의 'hōrā'(다니다, 걷다)에서 차용한 용어이다.⁷⁾ 이 단어는 복수 ḥawāriyūn의 형태로 알이므란장 52절 외 4곳에서 사용되었다. 4-(b)의 nāfaqa는 '의심하다, 속이다'의 뜻인 nāfaka에서 차용된 것으로 알이므란장 167절 외 1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파생어 'munāfiq'(위선자)역시 꾸란의 여러 구절에 언급되고 있다.

4-(c)의 'minbar'(설교단)은 하바쉬어의 'manbar'(의자)에서 유래한 것이며, 4-(d)의 'miḥrab'(미흐랍; 예배방향을 알리는 모스크 내부의 벽감)은 성소(聖所)를 의미하는 하바쉬어의 'mehrām'의 마지막 자음 /m/이 /b/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단어는 알이므란장 37절 외 3곳에서 사용되었다. 이 밖에 꾸란에는 쓰이고 있지 않으나 아랍어의 'fiṭar'(천성, 본능)와 'mashaf' 혹은 mushaf'(꾸란 사본)역시 하바쉬어에서 차용한 단어들이다⁸⁾.(ʿabd al-ʿaziz; 18)

6) 예언자 전기에 따르면 무함마드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예멘으로 이주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7) 어떤 단어의 어원으로 생각되는 것이 둘 이상일 때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규칙은 의미를 비교한 후 분명한 관계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hawār가 아랍어의 'hāra'(돌아오다)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바쉬어의 'hōrā'(다니다, 걷다)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의미상으로 훨씬 분명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8) 하바쉬어에서 유입된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예멘어에서 차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어휘들도 있다. 'khawkhah'(지붕, 천장의 채광창), 'mishkäh'(등불), 'sikkah'(대로, 큰길), 'māʿidah'(테이블, 탁자), 'baghl'(암노새) 등이 그런 예들이다.

'minbar'(설교단)의 경우, 하바쉬어의 'nabara'가 '앉다'의 의미인 반면 아랍어의 'nabara'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으므로 이 단어가 하바쉬어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minbar'(설교단)와 'miḥrab'(미흐랍; 예배방향을 알리는 모스크 내부의 벽감)역시 아랍어에 기본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었던 반면, 하바쉬어에는 있으므로 하바쉬어를 그 기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페르시아어

이슬람 이전에 아랍인과 페르시아인들은 무역활동에 의해 다른 민족보다 더 빈번히 접촉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의 대상들은 전통적인 맥카-삼-예멘-이라크-이집트 무역로 외에 아라비아 반도 깊숙이 들어가는 무역로를 왕래하기도 하였다.⁹⁾ 일설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왕 쿠스라는 매년 무역대상을 조직하여 맥카의 우카즈 시장으로 파견하였는데 이 페르시아 대상들을 아미르족이 약탈하는 일이 잦았다고 전한다. 이 사건으로 페르시아 왕의 지시를 받은 히라의 알문디르와 아미르족 사이에 전쟁(앗살란 전쟁)이 발발하여 히라인들이 승리한 적이 있다.(ʿabd al-ʿazīz; 21)

고전아랍어 형성기에 아랍어가 페르시아어로부터 차용한 어휘가 매우 많다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산조 당시 중동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아랍어가 공용어였던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페르시아어의 영향은 오히려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Bargstrasser; 143, Ḥāmid ʿabd al-Qādir; 95) 실제로 꾸란에 존재하는 페르시아어는 아랍어의 1/4정도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고전아랍어 형성기에 페르시아어의 영향은 다른 언어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페르시아어가 아랍어에 크게 영향을 준 시기는 압바스조 이후로 보아야 한다)

쿠파로부터 약 3마일 떨어진 유프라테스강 서안에 위치한 히라 왕국은 접촉의 두 민족간 접촉의 고리였으므로 페르시아어의 차용은 히라의 아랍인을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슬람이 출현하기 오래 전에 아라비아 반도에 이주한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직접 차용되기도 하였다. 알자히즈는 메디나, 쿠파, 바스라에서 사용된 페르시아 어휘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주한 메디나의 (아랍) 주민들은 페르시아어 어휘를 좋아하여 ‘수박’(al-batīk)를 ‘al-karbaz’라하고 ‘가난한 사람’(al-samīt)을 ‘al-razdaq’라고 부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 뿐만 아니라 쿠파의 주민들도

9) 이와 관련된 꾸란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내가 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거기에 내가 베풀어주는 물건으로서 각종 과일을 가져다주지 않았느냐?”(꾸란 제28장 58절)

‘삼’(al-mishāh)을 ‘bal’이라 하지만 ‘bal’은 페르시아 말이다. ... 바쓰라 주민은 네 갈래 길을 만나면 ‘marbaṣah’라고 하고 쿠파 주민은 ‘al-sūk’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페르시아 말이다. 또 그들은 시장(al-sūq)을 ‘al-wazār’라고 하는데 이 ‘wazār’ 역시 페르시아 말이다.”(al-Jāhiz; 1/19-20)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페르시아어에서 아랍어에 유입된 외래어는 직접 유입된 것과 아랍어를 거쳐 간접 유입된 것이 있다. 둘 중에 어느 쪽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의심이 가는 어휘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검증작업은 베르그스트라서가 말한 대로 “대부분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한 작업”이기까지 하다.(Bargstrasir; 143-145)

아래의 보기는 페르시아어에서 직·간접으로 유래한 것으로 외래어들이다.

(보기 5)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외래어¹⁰⁾

majūs(배화교도) - misk(미스크;식물의 이름) - ʔistabraq(비단의 일종) - junāh(죄) - zanjabil(생강) - sirāj(등불 혹은 예언자) - yahūd(유대인) - surādiq(천막) - kanz(보물) - miqlād(열쇠, 창고)

위 보기의 (열쇠, 창고)는 꾸란에서 오직 복수 maqālīd만이 앗주마르장 63절과 앗슈라장 12절에 사용되었다. 이 밖에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로는 하디스와 자힐리아 시대의 시가문학에 diwān(디완), dihqān(족장), farsakh(도량단위), nairūz(새해 첫날), sawlajān(지팡이), jamūs(황소), ʔibrisim(비단의 일종) 등 잘 알려진 어휘들이 있다.

III. 외래어의 언어적 특징

1. 근자음 혹은 파생어가 없음

어떤 단어가 외래어가 아니라면 아랍어 근자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근자음의 유무야말로 아랍어학자들이 외래어를 식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차용한 이후에 근자음을 부여받은 외래어라해도 순수한 아랍어와는 언중(言衆)의 본능적

10) 보기의 majūs는 꾸란 알랏즈장 17절, misk는 알무탐피핀장 26절, ʔistabraq는 아카흐프장 31절 외 3곳, junāh는 알바까라장 158절 외 23곳, zanjabil은 알인산장 17절, sirāj는 알푸르칸장 61절 외 3곳, yahūd는 알바까라장 113절 외 6곳, surādiq는 알카흐프장 29절, kanz는 후드장 12절 외 3곳에서 사용되었다.

감각에 의해 구별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알자왈리끼(al-Jawāliqī; 1073-1144)¹¹⁾는 tannūr(빵굽는 오븐)의 근자음이 /t, n, r/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순수)아랍어에 그런 근자음은 없다고 말했다. 13세기의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야꾸트(Yaqūt al-Hamawī; 1179-1229)¹²⁾는 sināʾ(시나이)의 근자음을 아랍인들이 알지 못하므로 아랍어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는 선대의 알자왈리끼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상기한 두 명의 언어학자 외에도 알카파지(al-Khafājī; 1571-1659)¹³⁾는 ʾustadh(전문직 종에 종사하는 장인, 교수)의 근자음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s, t, dh/도 순수한 아랍어가 아니라고 하였으며,¹⁴⁾ 알라깁(al-Raghib; 1108년 사망)¹⁵⁾ 역시 같은 논리로 rabbānī(신성한, 성스러운)가 순수한 아랍어가 아니라 고대 시리아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라고 보았다.

차용 후 근자음을 부여받은 외래어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학자들의 의견 불일치는 사전의 단어배열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narjis(수선화)의 경우, 알미스바흐(al-Miṣbah) 사전은 /r-j-s/ 항목에 넣었으나 리산 알아랍(Liṣān al-ʿArab)은 /r-j-s/ 항목과 4근자음인 /n-r-j-s/의 항목에 동시에 넣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어 magganik-on에 기원을 둔 외래어 manjanīq(석궁, 노포)¹⁶⁾도 마찬가지였다. 알마지니는 이 단어의 nūn이 부가자음이라고 보고 그 어형이 /FanʿaLiL/이라고 하였으나 nūn을 근자음으로 본 다른 사람들은 어형이 /maʿʿaLiL/이라고 보았다. 또 mīm을 부가자음이라고 본 학자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알미스바흐 사

-
- 11) 알자왈리끼 혹은 이븐 알자왈리끼는 바그다드 학파에 속하는 문법학자요 사전편찬자이다. 가장 유명한 저서는 아랍어의 외래어의 차용을 다룬 ‘알무아르랍’이다. 제자 중에 아부 알바라카트 알안바리와 이븐 알카트삽이 있다.(al-Munjid; 206)
 - 12) 로마출생의 아랍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한 상인이 하마트에서 그를 노예로 샀다고 한다. 알레포에서 살았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유명한 ‘무으잠 알불단’, ‘무으잠 알우다바’ 등이 있다.(al-Munjid; 617)
 - 13) 알카파지 사합 앗딘 아흐마드. 이집트 태생의 법관으로 어학과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언어학 분야의 저서로는 아랍어에 있는 외래어를 다룬 저서 ‘쉬파 알갈릴 피 마 피 칼람 알아랍 민 앗다킬’이 유명하다.(al-Munjid; 232)
 - 14) sin과 dhāl이 한 단어 안에 있는 순수한 아랍어가 없기 때문이다.
 - 15) 알라깁 알아스파하니. 아랍어와 꾸란의 해설로 명성을 날린 학자. 바그다드에서 살았으며 유명한 저서로 꾸란의 외래어를 다룬 ‘알무프라다트 피 가립 알푸르안’이 있으며 문학자들을 수록한 ‘자미으 알우다바’, 꾸란을 해설한 ‘자미으 앗타파시르’가 있다.(al-Munjid; 260)
 - 16)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부터 아랍어에 manjanīqa로 유입된 후, 이 단어가 다시 아랍어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은 manjanīq(석궁, 노포)를 /m-j-n/ 근에 배열하였고 리산 알아랍은 /m-j-n-q/ 근에, 앓씨하흐 사전은 /j-n-q/ 근에 배열하였다.

언어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ʔistabraqa(비단의 일종)도 마찬가지이다. 다수 설은 이 단어가 페르시아어로부터 아랍어에 유입된 후(ʔistabran 혹은 ʔistabrakhā) 아랍어에 재차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알미스바흐 사전은 이 단어의 첫 자음 알리프(al-alif)를 근자음으로 보고 알리프(al-ʔalif)항에 배열하였고, 리산 알아랍 사전은 /b-r-q/와 /s-r-q/항에 배열하였다. 그런가하면 이 단어를 5근자음으로 보아 /s-t-b-r-q/항에 넣고 있는 학자도 있다.(al-Shidyāq; 28) /b-r-q/을 근자음으로 보는 것은 앓쉬드야끄(al-Shidyāq; 1804-1888)¹⁷⁾가 지적인 대로 의도적으로 순수아랍어와 비슷하게 근자음을 부여한 것일 뿐이다.¹⁸⁾

한편, 번역차용어를 외래어라고 간주하는 이유 역시 근자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번역차용어는 아랍어화하기 위해 근자음을 부여받기도 하였으나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래어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dayābūdh의 어형을 /FayāʔūL/, 그 근자음을 /d-b-dh/라고 할 수는 있으나 파생어가 dayābūdh 하나뿐이므로 순수한 아랍어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핀 외래어 narjis(수선화)의 어형을 /naʔʔiL/, 그 근자음을 /r-j-s/이라 해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이 단어는 순수한 아랍어의 4근자음 단어와 비슷하지만 알자왈리끼는 이를 아랍어화한 외래어라고 보았다.(알자왈리끼; 379)

최근 들어 컴퓨터를 활용하여 아랍어 근자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제1근이 dal이고 제2근이 thā인 세근자음 단어의 마지막 제3근으로는 /t, th, d, z, s, ḍ, ṭ, ʒ, ʕ, f, m, w, y/가 오지 않음이 밝혀졌다.(Muḥammad Hasan ʕabd al-ʕaziz; 55-56)¹⁹⁾ 따라서 제1근이 dal, 제2근이 thāʔ, 그리고 마지막 제3근이 상기한 13개의 자음 중 하나로 구성된 단어라면 순수한 아랍어가 아닌 외래어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17) 아흐마드 파리스. 아랍신문의 초기 지도자로 아랍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쉽고 간결한 문체로 유명하다. 아슈꾸트에서 출생하여 이스탄불에서 사망했으며 이집트, 말타, 튀지지로 여행하였다. 대표적 저서로 피루자바디의 사전 무히뜨를 비평한 '알자수스 알라 알까무스'가 있다. (al-Munjid;331)

18) 라틴어 stabulum에서 아랍어를 거쳐(ʔistablin) 아랍어에 유입된 ʔistablun(헛간, 곡식창고), 페르시아어에서 아랍어를 거쳐 간접적으로 아랍어에 들어온 ʔistabraqa(비단), 역시 페르시아어에서 아랍어를 거친 후 아랍어에 들어온 zarājūn(황금색의) 등의 외래어에서도 같은 혼란을 보이고 있다.

19) 알리 힐미(ʕali Hilmi) 박사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리산 알아랍 사전과 앓시하흐 사전에 있는 세근자음 단어의 근자음 분포를 연구하여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이끌어냈다.(ʕali Hilmi;113)

2. 순수 아랍어의 어형이 아님

외래어의 특징에서 아랍어학자들은 *ʔibrisim*(비단의 일종)과 같이 외래어 어형이 순수한 아랍어의 어형인지 아닌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했다. 가령, 아랍어 명사와 동사의 순수한 어형을 최초로 언급한 시바와이히는 명사의 어형으로 308개를 들었다. 이븐 앓사르라즈(*ʔibn al-Sarrāj*; 929년 사망)²⁰는 여기에 22개를 더하여 330개를 순수한 아랍어 어형이라고 말하였으며 후대의 아므르 알자르미(*ʔamr al-Jarmī*; 839년 사망)²¹, 이븐 칼라와이히(*ʔibn al-Khālawayhi*; 980년 사망)²² 등은 다시 여기에 몇 가지 새로운 어형을 더했다.(*al-Suyūṭī*, 2/425)

시바와이히는 그의 책 알키탱(*al-kitāb*)에서 어떤 단어가 순수 아랍어의 어형이 아니면 외래어라고 하였다. “우리는 아랍어의 명사 중에 /FaʔʔaL, /FuʔʔiL/, … 등의 어형이 없으며, /FiʔʔuL/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 /FuʔʔyL/이 아랍어의 명사나 형용사의 어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며 /FuʔʔyiL, FiʔʔayL/역시 아랍어의 어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우리는 아랍어에 /FuʔʔayyaL, FuʔʔayLiL/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우리는 아랍어에 /FiʔʔuLLa, FaʔʔuLLa/형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 또 명사와 형용사 중에 /FuʔʔiL/형은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것은 오직 동사에서만 나타나는 어형이며 아랍어에는 /FiʔʔuL/형도 없다.…”(*시바와이히*; 4/244, 261, 266, 267, 276)

이븐 칼라와이히(*ʔibn al-Khālawayhi*)도 시바와이히처럼 어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그의 책 ‘라이사 민 칼람 알아랍’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랍인의 말에는 /FiʔʔawL/이란 어형이 없으나 *sinnawr, sinnawt, jillawz*는 예외이다. 아랍인의 말에는 /FiʔʔaL/이란 어형이 없으나 *himmas, jillaq* 두 단어는 예외이다.…”(*ʔibn al-Khālawayhi*; 44, 45, 46, 50)

어형의 중요성은 알칼릴(*al-khalīl*), 아부 하얀(*ʔabū Ḥayān*; 1256-1344)²³을 비

20) 아부 바크르 무함마드. 바그다드 학파에 속하는 문법학자로 제자 중에 앓자즈, 아부 사이드 앓시라피, 알룸마니, 아부 알리 알파리시가 있다. 대표적인 저서는 ‘시바와이히의 그 책 설명’과 ‘원리들의 큰 책’이다.(*al-Munjid*; 8)

21) 아부 오마르 살리흐. 바쓰라의 문법학자. 저서로 ‘시바와이히의 이상한 점 설명’(타프시르 가립 시바와이히)이 있다.

22) 함단에서 출생하여 바그다드에서 수학했고 알레포에서 살면서 사이프 앓다올라와 그의 자녀들을 가르쳤다. 저서에는 ‘꾸란 30장의 격표시’, ‘라이사의 책’이 있다.

23) 안달루시아의 언어학자. 그라나다에서 출생하여 카이로에서 사망했다. 아랍어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이븐 말리크의 알피야 해설서인 ‘민하즈 앓살리크 피 알칼람 알라 알피야트 이븐 말리크’, 꾸란의 해설서인 ‘알바흐르 알무히뜨’가 유명하다.

못한 대다수 후대의 아랍어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강조되어, 한 어형에 속하는 아랍어 단어가 없으면 외래어로 간주하였다. 알칼릴은 baqqam(염료채취용 나무)에 관하여 말하면서 /FaʃʃaL/형에 속하는 다른 아랍어 단어가 없으므로 외래어라고 하였고(al-khalil; 5/82), 아부 하얀(ʔabū Hayān) 역시 yūsuf, yūnis 등은 그 어형에 속하는 다른 아랍어 어휘를 찾을 수 없으므로 외래어라고 보았다. 후대에 일부 아랍어학자들은 순수한 아랍어의 어형에 외래어의 어형을 더하여 아랍어 어형으로 간주하기도 하였으나 외래어의 어형에 속하는 단어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아부 하얀은 이러한 외래어로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ʔabū Hayān; 1/26, 1/17-71)

(보기 6) firind(→ FiʃinL), kurkum(→ Fuʃʃul), khawarnaq(→ FawaʃnaL), mihrajan(→ miʃʃaLan), tagūt(→ FaʃuLut), ʔajurūn (→ FaʃuLun)

아랍어학자들과 사전편찬자들이 외래어에 부여한 어형은 아랍어 근자음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또 그들이 취한 방식은 외래어의 자음 전부를 근자음으로 간주하는 방식과 순수 아랍어처럼 세 개나 네 개의 근자음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방식은 각각 근자음의 설정방식의 비통일성과 장모음이 있을 경우의 혼란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카이로 아랍어학회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음수가 많지 않은 외래어는 세근자음으로 구성된 어형을 부여하고 자음 수가 많은 외래어는 자음 전부를 근자음으로 보는 일종의 중도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al-Muʃjam al-Kabir; 1/4) 예를 들어, lijām의 근자음은 /l-j-m/, jiṣṣ의 근자음은 /j-ṣ-ṣ/으로 간주하여 어형을 설정한 반면, ʔistabraqa와 ʔibrīsim은 구성자음의 순서대로 근자음을 인정하고 어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3. 순수 아랍어의 자음배열 순서에 위배됨

아랍어학자들은 순수한 아랍어의 자음 중에는 발음의 특징상 연속해서 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몇 개의 음소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 음소가 연속된 단어들은 외래어라고 보았다. 순수 아랍어에 연속되어 나타나지 않는 음소들과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jīm*과 *qāf*는 한 단어에 오지 않는다. 따라서 한 단어에 이 두 음소가 오면 외래어로 간주한다.

(보기 7) *qabaj*, *jawq*

리산 알아랍(*Lisān al-ʿArab*)과 앗시하흐(*al-Ṣiḥāḥ*)에 있는 단어들의 근자음의 통계를 조사해 본 결과 세근자음 단어의 경우 *qāf* 뒤에 *jīm*이 연속해서 온 단어는 없었으며 *jīm* 뒤에 *qāf*가 연속해서 온 단어도 없었다. 그러나 어두의 *jīm*, 어미의 *qāf* 사이에 다른 자음이 삽입된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 삽입된 자음들은 /r, z, s, q, l, n, w/의 7개였다. 리산 알아랍 사전의 경우, 다음의 단어들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단어들은 외래어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보기 8) *jawzaq*, *jawsaq*, *jillaq*, *jawq*, *janq*

한편, 제1근자음에 *qāf*가 오고 제3근자음에 *jīm*이 올 경우, 제2근자음으로 *bāʔ*, *ṭāʔ*, *nun*의 세 가지 자음이 온 단어들이 있었다. 이 단어들 역시 외래어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보기 9) *qabaj*, *qanaj*, *qatj*

2) *šād*와 *jīm*은 한 단어에 오지 않는다. 따라서 *jišš*, *šanjah*, *šawlajān* 등은 외래어이다. 리산 알아랍 사전과 앗시하흐(*al-Ṣiḥāḥ*) 사전의 어휘들을 조사한 결과 세근자음의 경우 *šād* 뒤에 *jīm*이 온 경우는 /š-j-j/의 항목(*Šajj*; 쇠와 쇠를 부딪치는 소리)에서만 존재하였다. 또 *jīm* 뒤에 *šād*가 온 경우는 /j-š-š/의 형태(*Jišš*; 석고, 깁스)로만 존재하였는데 이 것들은 외래어라고 볼 수 있다. 리산 알아랍 사전에는 어두의 *šād*, 어미의 *jīm* 사이에 /r, l, m, n, h, w/의 여섯 자음이 있는 외래어가 아래의 보기처럼 나타나고 있다.

(보기 10) *šārūj*, *šawlaj*, *šawlajān*, *šawlajānah*, *šamaj*, *šammājah*, *šayyājah*, *šahyūj*, *šahyaj*, *šawjān*, *šawjānah*

위의 보기에 있는 단어들은 그 이상의 파생어(동사와 명사를 포함)가 없이 오직 한 단어로만 존재하고 있으므로 외래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3) *dāl* 뒤에 *zāy*가 온 단어는 외래어 외에는 없다. 리산 알아랍 사전과 앗시하흐 사전에서 조사한 바로 *dāl* 뒤에 *zāy*가 온 표제어는 *handaza*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외래어라고 볼 수 있다.²⁴⁾ 또한 아랍어에는 *jim*과 *taʔ*가 한 단어에 오는 경우가 없으므로 *tajin*, *tayjan*은 순수 아랍어가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ʔustādh* 역시 *sīn*과 *dhāl*이 한 단어 안에 존재하는 순수 아랍어가 없으므로 외래어로 간주할 수 있다.(al-Suyūṭī; 1/270, al-Miṣbah 사전; *ʔustādh* 참조)

4) *nūn* 자음 뒤에 *rāʔ*가 오는 순수한 아랍어 어휘는 없다. 따라서 *narjis*, *nariq*, *nawraj* 등은 외래어이다. 리산 알아랍과 앗시하흐를 조사한 결과, 세근자음 표제어 중에 *nūn* 뒤에 *rāʔ*가 온 단어는 /n-r-b/ 항목으로 *nayrab*, /n-r-j/ 항목으로 *nawraj*, *nayraj*, /n-r-s/ 항목으로 *naras*, /n-r-sh/ 항목으로 *narash*가 있었다. 네근자음 표제어 중에 *nūn* 뒤에 *rāʔ*가 온 단어는 *narjasa*, *narjala*, *narsana*, *narmaqa*이며 이 동사들로부터 파생된 명사들 역시 외래어이다.

5) 위의 1)-4)에서는 3근자음 단어의 예를 들었으나 4근자음과 5근자음에서 파생된 단어들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자음들이 있다. 이 자음들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후루프 앗달라까(Huruf al-Dhalāqah; 流音)이라고 부르며 유음에는 /r, l, n, f, b, m/의 6음이 있다.(알자왈리끼; 59, 칼릴 븐 아흐마드; 5/265) *Daʔshawqah*는 유음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외래어라고 볼 수 있다.

리산 알아랍과 앗시하흐 사전에서 3근자음으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 위의 유음 중 가장 잦은 빈도로 나타난 자음은 /r-n-m-l-b/의 순이었다. 4근자음에서 파생된 단어에 나타난 빈도수로는 /r-l-b-m-n/ 순이었으며 5근자음에서 파생된 단어에서는 /n-r-l-b-m/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결론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1-고전 아랍어(특히 꾸란의 아랍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아람어와 하바쉬어, 페르시아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 가운데 아람어의 영향이 특히 큰 것

24) *muhandiz*는 /z/음을 /s/으로 대체하여 *muhandis*로 사용하기도 한다.

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고전 아랍어 형성기에 아랍인과의 접촉이 특히 빈번했고 아랍어가 아랍어와 같은 셈어족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랍어 다음으로 아랍어에 영향을 준 언어는 페르시아어, 하바쉬어, 그리스어, 라틴어 순이었다.

2-고전 아랍어에 존재하는 외래어는 아랍어와 같이 세근자음이 대부분인 아랍어와 하바쉬어의 경우, 순수 아랍어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았던 반면 어족이 다른 기타 언어들은 비교적 용이했다. 외래어의 식별에는 외래어의 언어적 특징 즉, 근자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근자음이 있더라도 그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거의 없다는 점, 어형이 순수 아랍어의 어형이 아니라는 점, 자음의 배열이 순수 아랍어의 규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 몇 가지 기준이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한 기준들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었으며 외래어 가운데는 순수 아랍어와 식별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었다. 이런 부류의 외래어들은 수용한 후 오랜 세월이 흐르자 언중이 순수한 아랍어로 간주한 것들이다.

3-고전 아랍어에 존재하는 외래어는 현대 아랍어의 외래어 수용 방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하였다. 즉, 고전 아랍어의 외래어와 현대 아랍어의 외래어 수용 방식에 큰 차이를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외래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랍어 학습자에게 어휘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아랍어 어휘습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었으나 고전 아랍어의 나머지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하디스와 자힐리야 시대의 시가문학에 존재하는 외래어를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디스와 자힐리야 시대의 외래어 연구가 미래의 다른 기회에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니콜슨, R. A. *아랍문학사*. 사회만(역). 서울: 민음사, 1995.
 송경숙, 전완경, 조희선. *아랍문학사*. 서울: 송산출판사, 1992
 이규철. “아랍어의 로마자 음역에 대한 연구”, *외대 논총*. 부산 외국어대학교, 부산. 제 15집. pp. 175-200 (1996).
 이슬람 국제 출판국. *코란*, 서울: Po Chin Chai Printing Co., 1988.

- 정규영. “아랍어의 외래어에 관한 고찰 - 이집트 지역의 근대화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6집. pp. 225-238. (1995).
- 정규영. “고전 아랍어의 외래어 차용 배경 및 그 실태”,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21-1호. pp 233~249 (2000).
- ʿabd al-ʿazzīz, Muhammad Hasan. *al-Taʿrīb fī al-Qadīm wa al-Hadīth*, Cairo: Dār al-Fikr al-ʿarabī, 1990
- ʿabd al-Bāqī, Muḥammad Fuʿād, 1987 ;
al-Muʿjam al-Mufahras li-ʾalfāz al-Qurʾān al-Karīm. Dār al-Fikr, Cairo
- ʿabd al-Qādir, Ḥamid. “Bayna al-ʿarabīyah wa al-Fārisīyah”, *al-Buhūth wa al-Muḥadarāt*, Vol. 26, pp. 83-130.
- Bargstrasir, *al-Taṭawwur al-Nahwī*. Translated by Ramaḍān ʿabd al-Tawwāb. Cairo: Maṭbaʿat al-Samāh, 1982.
- Gūzī, Bandali. “al-Mufradāt al-Lātinīyah fī al-Lughah al-ʿarabīyah”, *Majallat al-Hilāl*, Vol. 36, pp. 330-348 (1938).
- Gūzī, Bandali. “Baʿd ʾistilāḥāt Yūnānīyah fī al-Lughah al-ʿarabīyah”, *Majallat al-Majmaʿ*, Vol 3, pp. 330-336.
- Ibn Ishāq, Ibn Khālawayhi, abū ʿabd al-Lāh al-Ḥusayn. *Laysa fī Kalām al-ʿarab*, Taḥqīq by ʾahmad bn al-ʾamīn al-Ṣhanqītī. (n.p.): Maktabat Ṣabī, (n.d.).
- Ibn al-Manzūr. *Lisān al-ʿarab*, Cairo: Dār al-Maʿārif. 1985.
- al-Jāhīz. *al-Bayān wa al-Tabayīn*. Taḥqīq by ʿabd al-Salām Ḥārūn, Cairo: Maktabat al-Khāanjī, (n.d.)
- Jeffery, Arther. *The Foreign Vocabulary of Qurʾān*, Gaekwad’s Oriental Studies. Oriental Institute, 1938.
- Majmaʿ al-Lughah al-ʿarabīyah. *Muʿjam ʾalfāz al-Qurʾān al-Karīm*. 2 Vols. Cairo, 1989.
- al-Munjid fī al-Lughah wa al-ʾaṣṣām*, Beirut: Dār al-Mashriq, 1992.
- Mūsā, ʿalī Ḥilmī. *Ṭṣāʾīyat Judhūr Muʿjam Lisān al-ʿarab*, Kuwait: Kuwait University, 1972.
- Ṣhāhin, ʿabd Sabūr. *al-ʿarabīyah Lughat al-ʿulūm al-Taḥnīyah*. Cairo: Dār al-ʾiʿtisām, 1983.
- Sībawayhi. ʿamr bn Ṣuḥmān. *al-Kitāb*. Taḥqīq by ʿabd al-Salām Ḥārūn. Cairo: al-Hayyāh al-Miṣrīyah al-ʿamāh lil-Kitāb, 1966.

- al-Suyūṭī. *al-Muḏhir*. Taḥqīq by Jād al-Mawli. Beirut: Dār al-Jil, (n.d.).
- Wehr, Hans. *A Dictionary of Modern Standard Arabic*, Beirut: Librairie Du Liban, 1974.
- al-Yasūfī, Rafāʿil Nakhlah. *Gharāʾib al-Lughah al-Ṣarabīyah*. Lebanon: Dār al-Mashriq, 1989.
- Zāzā, Ḥasan, *al-Sāmiyūn wa Lughātuhum*. Alexandria: Dār al-Maṣārif, 1971.